에코투어리즘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물아일체 체험

이맘때면 싱그러운 푸름과 온갖 생명들이 어느 때보다 찬연히 피어난다. 노자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했다. 에코투어리즘(Eco-tourism·생태관광)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면서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험이다. 생태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는 창녕의 우포늪,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구, 서천의 국립생태원을 둘러봤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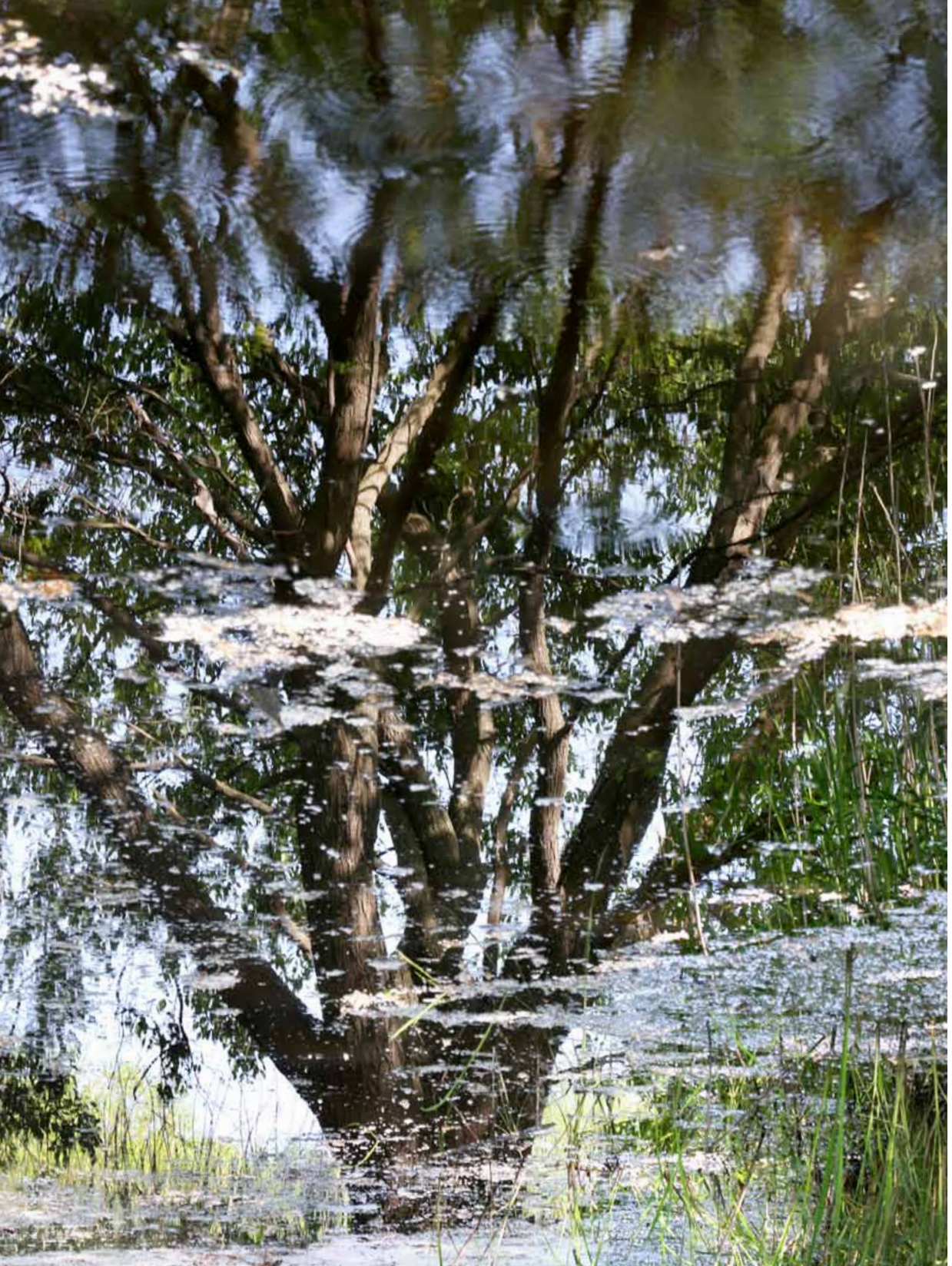
창녕 우포늪

시간 여행을 떠난 듯 원시가 숨 쉬는 신비의 늪

1억4천만 년 전에 생성된 우포늪은 온몸 가득 물을 담은 자연습지로 자연이 전하는 감동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생태관광 명소다. 동식물 1천500여 종이 서식하는 우포늪은 1998년 국제 공인 람사르습지에 등재됐고, 2011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습지는 언제나 물을 마시고 뱉는다. 그 시간 가운데 수많은 생명이 자란다. 수만 년을 견뎌낸 그 깊이만큼 늪은 고요하다. 하지만 늪지에 서식하는 생명체들의 삶은 역동적이다. 물 위에 떠서 사는 개구리밥을 비롯해 생이가래, 마름 등이 늪을 녹색 융단으로 수놓고, 그 위로는 왜가리가 날갯죽지를 푸드덕거린다. 수생식물은 가만히 있는 듯 보여도 물밑에서는 생명을 회복하려는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다. "생명이란 이해력을 초월한 기적"이라 했던 레이첼 카슨의 말처럼 우포늪에서도 그 기적의 모태는 생명이다.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은 우포(1.28㎢), 목포(0.53㎢), 사지포(0.36㎢), 쪽지벌(0.14㎢) 등 4개의 늪으로 형성됐다. 담수 면적은 대합, 이방, 유어, 대지 등 창녕군 4개 면에 걸친 2.31㎢로, 서울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크기다. 1억4천만 년 전에 생성된 늪에는 가시연꽃, 자라풀, 매자기 등 식물 500여 종이 산다. 특히 한해살이인 가시연꽃은 장마가 지나고 나면 늪 전체를 푸른 잎으로 덮어버리는 멍물이다. 멸종위기종으로 잎의 지름이 최대 2m까지 된다. 풍부한 부식질과 수초는 곤충과 새들의 터전이다. 쇠물닭과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등 160여 종의 조류와 포유류, 파충류, 곤충, 어류 등이 서식하고 있다.



높은 푹 젖은 땅이다. 1억4천만 년 전에 생성된
우포늪은 탐방객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어 놓는다.

뭍도 물도 아닌 우포늪은 나희덕 시인의 감성을 두드렸다. 나 시인은 "후두둑, 빗방울이 늪을 지나면/ 풀들이 화들짝 깨어나 새끼를 치기 시작한다/ 녹처럼 번져가는 풀/ 진흙 뻘을 기어가는 푸른 등 같기도 하다"고 노래했다.

우포늪은 하루에도 시시각각 다른 풍경으로 감동을 안겨주는데,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에 우포늪의 진면목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다. 새벽녘의 늪은 원시의 분위기 그 자체, 한없이 빨려들 것 같은 신비로움에 어지럽기까지 하다. 동이 트기 전 사초군락지와 왕버들과 주변의 산은 물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감추기를 반복한다. 목포제방과 주변 산언덕에서 우포늪을 바라보면 "이곳이 무릉도원이 아닌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늪 가까이 다가서자/ 낯선 발소리에 컹컹 동네 개 한 마리 짖었다/ 긴 밤을 엎드려 있던 게으른 안개가/ 그때마다 몸을 일으키자/ 풀썩풀썩 품안에 갇혀 있던 새벽이/ 수초 틈을 헤집고 나왔다"는 최영철 시인의 시 '새벽 우포에서'처럼 자욱한 물안개를 뚫고 새어나오는 새벽은 신비감을 넘어 우주적 외로움마저 느끼게 한다.

동이 트면 수면 위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물안개는 시나브로 사라지고 늪이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새벽녘 물안개와 산을 넘어 불기운을 드러내는 일출도 가히 몽환적이다. 지난 2010년부터 늪의 하루하루를 관찰·기록하고 있는 이인식 우포자연학교 교장은 "물안개가 낀 새벽녘 우포늪을 마주할 때마다 생명에 대한 경외감까지도 느낀다"면서 "태고의 신비를 보여주는 우포늪은 새벽, 아침, 일몰, 한밤이 다 다르다"고 말한다.

붉은 해의 기운을 따라 목포제방 앞 징검다리를 건너 사초군락지에 들어서면, 뭇 생명체들이 움직이는 소리와 풀 향기가 온몸을 감싸 안으며 자연의 신비를 들려준다. 이삭사초, 괭이사초라고 하는 사초군락지는 새들이 알을 낳는 장소이자 야생동물의 쉼터이기도 하다. 방금 지나간 고라니 발자국과 배설물을 발견하고, 짝을 부르는 꾀꼬리 소리가 귀에 감기는 순간, 물아일체의 경지에 빠져들게 된다.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인 늪에서 탐방객은 오히려 심신의 안정과 평화를 얻게 되는 신비를 체험한다. 우포늪 생명의 은혜다.

우포늪은 람사르국제협약에 등록된 보호 습지로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 등 늪 4개로 이뤄져 있다. 천천히 걷다 보면 원시 자연의 풍경과 마주하고 수많은 생물이 내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포늪 생명길, 시시각각 다른 비경 연출

'우포늪 생명길'은 느긋하게 걸으며 우포늪 생태탐방을 즐길 수 있는 길이다. 대부분 구간이 외부와 연결돼 있어 어디로 접근해도 관계없지만 우포늪 생태관에서 출발하는 것이 편하다. 주차장과 버스정류장, 식당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탐방코스는 우포늪 생태관에서 출발해 돌아오는 3개 코스(30분 1㎞, 1시간 2.5㎞, 3시간 8.4㎞)와 목포 쪽을 따로 둘러보는 2시간짜리 코스(4.8㎞) 등 4개다.

우포늪 생태관에서 늪 쪽으로 들어서면 이태리포플러가 줄지어 선 미루나무길이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100m 가면 야트막한 산 위의 우포전망대로 오르는 계단을 만나고, 이곳을 지나면 버드나무, 미루나무, 뽕나무가 뒤섞인 오솔길이다. 1960~70년대 신작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이었지만 경제 개발이 되면서 사라진 고향길이다. 그래서 포근하고 좋다. 탐방로를 따라 900m 걸으면 동요에도 나올 만큼 우리에게 친숙했던 따오기 복원센터와 임진왜란 때 곽재우 의병장이 진지를 만들어 군량미를 쌓아두었다는 둔터가 나온다. 따오기는 미꾸라지 등 먹이가 농약이나 제초제에 오염돼 없어지자 1980년 이후 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현재 따오기 복원센터에서 22쌍 149마리가 살고 있다.

새들의 안방을 훔쳐보는 '제3 관찰대'를 지나면 수리부엉이가 둥지를 틀고 있는 바위 절벽에 닿는다. 이곳에서 700m 구간은 사초군락지로 지정돼 보호되기 전에는 농민들이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던 곳이다. 왕버들 밑동에 기대고 앉아 연못에 비치는 나무 그림자를 보면서 명상할 수 있는 비밀의 정원과 원시자연의 멋을 선사하는 왕버들 군락지를 지나면 살살 흐르는 토평천의 징검다리에 닿는다.

늪을 경작지로 만들기 위해 쌓은 목포제방과 숲탐방로3길을 지나면 우포 북단 소목마을 나루터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배가 그림처럼 떠 있다. 나무로 만든 1인용으로, 보통 장대를 저어서 가기 때문에 장대배라고 부른다. 또 배 앞이 약간 들려 있어서 이망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늪배라고도 한다. 소목마을 주민들은 장대배를 밀고 나가 늪에 쳐 놓은 낭자망에서 붕어, 가물치 등 각종 물고기를 거둬 올린다. 이른 아침 늪을 오가는 장대배의 풍경이 서정적이다. 소목마을 나루터를 지나면 길을 따라 주매제방과 숲탐방로2길, 사지포제방, 잠수교, 대대제방이 이어진다. 토평천을 가로지르는 잠수교는 비가 많이 오면 통행이 제한되는 곳이다. 대대제방은 특히 일몰이 장관이다. 제방 오른쪽은 우포늪, 왼쪽은 대대마을의 들녘이다.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제방 길을 1.4㎞ 따라가면 미루나무길이다.

"우포는 옛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던 시간부터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싹이 트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흰 눈이 소복이 쌓이던 그 시간들마저도 우포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포늪 생태길을 한 바퀴 돌고 난 뒤 우포늪 생태관에서 읽었던 글귀가 떠올랐다.

우포늪 생태 자전거 길은 2개의 투어 코스로 나뉜다. 우포늪생태관이 시·종착점이다.(위) 마산의 전안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소목나루터 앞에서 생태교육을 받고 있다.(아래)

원시에서 뻗어 나온 때 묻지 않은 푸른 세계가 탐방객을 반긴다. 물가에 늘어선 왕버들 자태는 물속에 투영돼 한층 아름답고, 수생식물로 뒤덮인 늪은 마치 녹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하다.

충남 태안에 위치한 신두리 해안사구는 무려 1만5천만 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거쳐 만들어진 모래언덕이다.

신두리 해안사구

바람과 모래가 빚어낸 예술 작품

바람이 불 때마다 지형이 바뀌는 신두리 해안사구는 아프리카 나미브 사막의 '듄 45'를 닮은 '한국의 사막'으로 불린다. 초승달 모양의 모래언덕은 마치 거대한 설치미술품처럼 보이며 경이롭고 장엄하다.

남북으로 뻗은 충남 태안의 리아스식 해안은 장장 530㎞에 달하고, 곳곳마다 절경을 끌어안고 있다. 이중 으뜸은 원북면에 위치한 신두리 해변이다. 신두리 해변에는 다른 곳에 없는 신두리 해안사구와 두웅습지 등 두 가지 볼거리가 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무려 1만5천 년이란 장구한 세월 동안 만들어진 생태계의 보고다. 해안사구는 파도에 의해 밀어 올려진 모래가 썰물 때 햇볕에 마르고 오랜 세월 바람에 의해 해안 주변으로 쌓인 모래언덕이다. 신두리 해안사구의 밀가루처럼 고운 모래는 겨울철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계절풍이 옮겨 놓은 것이다.

'한국의 사막'으로 불리는 신두리 해안사구는 길이 3.4㎞에 폭 500~1천300m로 파도와 바람이 빚고, 그리고 시간이 깃든 합작품이다. 최대 높이 19m를 정점으로 좌우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언덕이 장관이다. 모래언덕 뒤로는 곰솔 숲이 병풍처럼 빙 둘러쳐져 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모래언덕과 습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사막지대라 할 만한 모래밭 생물과 늪지대라 할 만한 습지 생물이 나란히 공존한다.

'한국의 사막'으로 불리는 신두리 해안사구는 통보리사초, 갯그령, 순비기나무, 해당화, 개미귀신, 표범장지뱀 등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땅이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바람이 불 때마다 지형이 바뀐다. 바람이 모래언덕을 캔버스 삼아 물결무늬의 그림을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한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두웅습지와 공존한다.

습지도 공존하는 국내 최대 규모 해안사구

신두리 해안사구 탐방로는 걷기 좋고 운치도 있다. 이곳 출신 장원호 생태해설사는 "몇년 전부터 아까시나무 등 외래식물을 다 걷어내고 있지만 곰솔과 아까시나무가 심어지기 전에는 온통 모래언덕이었다"며 "많은 방문객이 모래를 밟다보니 사구의 높이가 점점 깎여서 어쩔 수 없이 지정된 탐방로를 통해서만 신두리 해안사구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예전엔 바람이 심한 날이면 밤새 모래 언덕 하나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한다. 탐방코스는 총 3개로 A코스는 1.2㎞로 30분, B코스는 2㎞로 60분, C코스는 4㎞로 2시간 정도 걸린다.

신두리 해안사구 탐방로에 들어서면 부드러운 곡선이 일품인 거대한 모래언덕이 펼쳐진다. 처음 보는 이국적인 모래언덕에 감탄하며 나무덱 탐방로를 따라 모래언덕 입구에 오르면 초승달 모양 모래언덕과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모래언덕은 바람이 불어오는 바다 쪽은 경사가 완만하지만 그 뒷면은 가파르게 깎여 있다. 바람의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바닷바람이 쓸고 간 모래언덕에는 고운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바람이 모래언덕 너머로 흩어진다. 흡사 아프리카 사막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낯설고 이색적인 풍경이다

나무덱 탐방로를 따라 모래언덕 사이를 걷다 보면 명주잠자리 유충인 개미귀신이 파놓은 모래 함정이 눈을 즐겁게 한다. 신두리 해안사구의 터줏대감인 개미귀신은 일명 개미지옥이라는 깔때기 모양의 함정을 파고 그 밑에 숨어 있다가 떨어지는 개미나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다. 이따금 표범장지뱀이 지나간다. 등 쪽에 호랑이 얼룩반점이 있는 표범장지뱀은 행동이 날쌔고 곤충을 잡아먹는다.

모래언덕에는 갯그령과 통보리사초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 모래땅을 비집고 촘촘히 고개를 내민 이 사구식물들의 뿌리는 매우 길어 모래를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두리 해안사구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언덕을 내려와 왼쪽 탐방로로 접어들면 사막 같은 풍경은 사라지고 곰솔생태숲이 이어진다. 바닷가 주변에서 자라기 때문에 해송이라고도 불리는 곰솔은 잎이 소나무보다 억세다. 곰솔생태숲을 지나면 억새가 군락을 이룬 억새골에 들어선다. 억새골은 넓게 펼쳐진 사구와 함께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특히 억새꽃이 피는 가을에는 환상적이다. 이어 오래전 운석이 떨어졌다는 작은별똥재를 지나면 해당화동산이다. 7월까지 꽃을 피우다가 방울토마토 크기의 붉은 열매를 맺는 해당화는 해변 모래땅에 무리지어 생육하는 장미과 낙엽관목이다. 예전에는 해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각종 개발과 생태계 변화로 구경하기 어려운 꽃이 됐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춤을 추는 해당화의 진한 향기에 취하다 보면 신두리 해변에 닿는다. 단단한 해변을 걷다 보면 다른 곳보다 작은 모래 경단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 엽낭게와 달랑게는 모래를 잔뜩 삼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만 빼먹은 후 모래를 뱉는다. 그러고 나서 모래를 둥글게 말아 놓는 특성이 있다. 해안사구 보존을 위해 해변 곳곳에 모래포집기를 설치했다. 해변에서 다시 해안사구로 오르면 순비기 언덕에 닿는다. 최고급 향수로도 사용되는 순비기나무는 모래가 바람에 의해 유실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사구 형성에 중요한 식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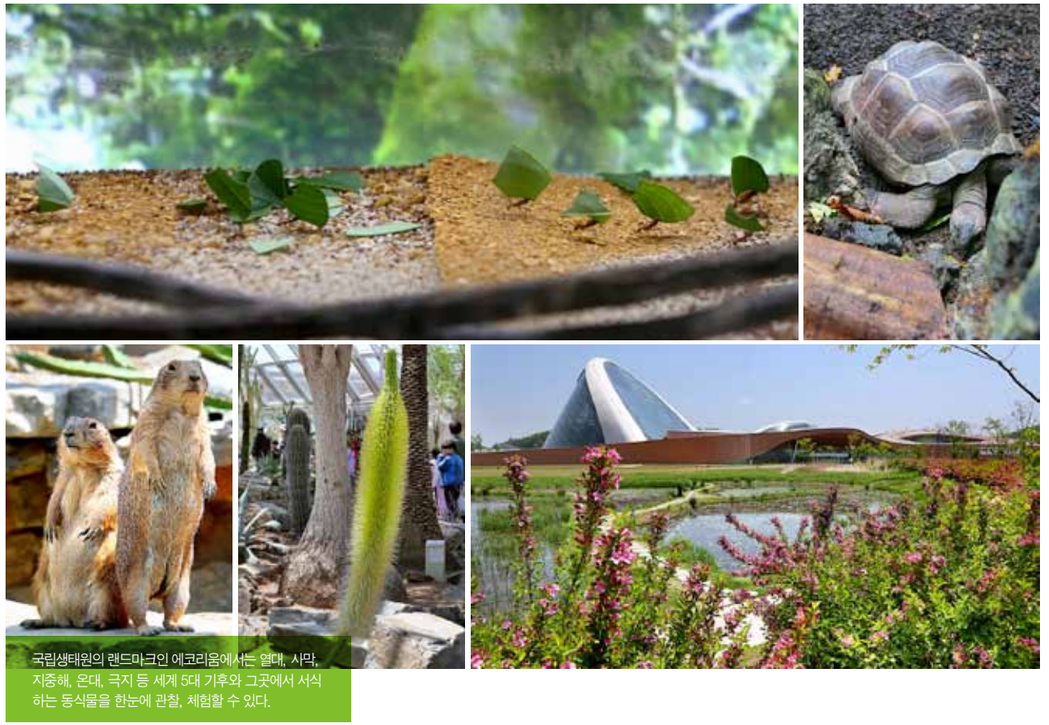
사구 남쪽에는 길이 200m, 너비 100m, 최대 수심 3m의 두웅습지가 있다. 사구가 형성되면서 모래 속으로 빗물이 들어가 지하수가 됐고, 그 지하수가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만들어진 것이다. 신두리 해안사구 면적의 0.5%를 차지한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있지만 우리나라 해안사구에 인접한 습지로는 규모가 제일 크다.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맹꽁이, 표범장지뱀을 비롯해 수생식물인 붕어마름, 갈대 등 동식물 수백여 종이 서식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생명체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금개구리다. 금개구리는 울음주머니가 발달하지 못해 큰 소리로 울지 못하고 그 소리도 매우 짧다. 산란은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이어진다.

사구가 생성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훼손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90년 이후 사유지를 중심으로 숙박시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해안사구는 보통 모래밭에 지나지 않았다. 개발 탓에 훼손되기 시작한 해안사구는 지난 2001년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국립생태원

세계 5대 기후대 체험이 가능한 에코리움

지난 2003년 12월 개관한 국립생태원은 축구장 90여 개 규모에 살아있는 동식물 4천5000여 종을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전시관이다. 세계 5대 기후의 생태계를 재현해 놓은 에코리움을 중심으로 습지생태원, 한반도숲, 고산생태원, 서산농업생태원, 사슴생태원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 1월 누적 관람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하며 새로운 환경·생태 체험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국립생태원의 랜드마크인 에코리움에서는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세계 5대 기후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한눈에 관찰, 체험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 어디에서도 눈에 쉽게 들어오는 건물인 에코리움(Ecorium)은 생태원의 랜드마크이자 생태원 탐방의 백미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에코리움은 전시관 면적만 2만1천932㎡로 세계 최대 온실인 영국 콘월의 '에덴 프로젝트'(2만3천㎡)와 맞먹는다. 에코리움은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에 지구의 5개 대표 기후생태계를 한자리에 모아놓아 '작은 지구'에 비유할 만하다. 창틀난방 시스템을 활용해 복사열을 통해 최적의 식물 생육환경을 조성한 에코리움 안에는 식물 1천900여 종과 동물 230여 종이 숨쉬고 있다.

이보라 자연환경해설사는 "국립생태원은 동물원이나 식물원이 아닌 동식물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연출해 놓은 생태전시관"이라며 "에코리움은 시각적 관람을 넘어 5개 기후생태계를 오감으로 느끼는 지구촌 생태 여행지"라고 말한다. 가능하면 주의 깊게 관찰하길 권한다.

오감으로 느끼는 지구촌 생태계

열대관에 들어서면 후끈한 열기가 턱밑까지 차오른다. 열대관의 기후 환경은 습도가 60~90%, 기온이 35도를 유지한다. 아시아 열대 우림을 중심으로 중남미, 아프리카 등 대륙별로 열대 서식지를 재현했다.

보통 악어보다 크기가 조금 작은 나일악어, 전기뱀장어, 피라루크, 알다브라육지거북, 이구아나, 바나나나무, 고무나무, 캐논볼트리 등 열대우림 지역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덩굴식물 시서스는 열대식물 특유의 가지 뿌리가 국숫발처럼 공중에서 치렁치렁 내려와 신비한 밀림의 느낌을 선사한다. 마치 정글을 탐험하듯 우거진 숲을 헤치며 이국의 생태를 관찰하노라면 무더위도 잊게 된다.

다음은 사막관이다. 열대관과 온도는 비슷하지만 습기가 적어서인지 생각보다 덥지 않았다. 사막관에 나미브 사막, 마다가스카르 사막, 아타마카 사막, 소노라 사막, 모하비 사막 등 지구 사막을 대표하는 지역이 재현되어 있다. 사막하면 떠오르는 다육식물과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선인장 450여 종을 관찰할 수 있다. 목도리도마뱀과 서부다이아몬드방울뱀, 검은꼬리프레리독 등도 만날 수 있다. 사막관을 나오기 전 만날 수 있는 검은꼬리프레리독은 사막의 초지에서 집단을 이뤄 생활하는데 낯선 사람들이 오면 경계병 자세를 취한다.

사막관에서는 대륙별 다양한 사막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선인장이 압권이다.

특히 모링가가 눈길을 끈다. '기적의 나무',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모링가는 세계에서 영양분이 가장 풍부한 나무다. 모링가는 우유보다 2배 많은 단백질, 오렌지보다 7배 많은 비타민, 바나나보다 3배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다. 작은 잎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영양분 덕분에 모링가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재배되고 있다.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모링가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인정해 모링가 재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지중해 기후를 보이는 캘리포니아, 유럽의 지중해, 호주 남부, 남아프리카 등을 재현해 놓은 지중해관에는 꽃과 허브 향기가 가득하다. 후각의 즐거움 덕분에 저절로 힐링이 된다. 지중해 식물의 대표선수격인 올리브 나무, 코알라가 좋아하는 유칼립투스, 벌레를 잡아먹는 식충식물, 향기가 좋은 허브 등 다양한 식물이 빼곡히 자라고 있다.

이 중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나무가 가장 친숙하게 다가온다. 바오밥나무는 높이 20m, 둘레 10m, 퍼진 가지 길이가 10m나 된다. 바오밥나무의 가지는 모두 위쪽에 달려있는데 마치 뿌리 모양이다. 신이 바오밥나무를 거꾸로 심었다는 전설이 있다.

한국의 기후대가 포함된 온대관에는 제주도 곶자왈의 생태계를 옮겨다 놓았다. 곶자왈은 제주어로 숲을 뜻하는 '곶'과 나무와 덩굴 따위가 뒤죽박죽 엉켜 있는 모습을 뜻하는 '자왈'의 합성어다. 특히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숲을 이루어,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집에 심으면 우환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무환자(無患子)라는 이름을 얻게 된 무환자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열매가 염주를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염주나무라고도 불린다.

극지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은 살아있는 생물들로 채워진 다른 전시온실과 달리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한반도의 지붕인 개마고원과 침엽수림이 발달한 타이가숲, 툰드라지역 등 극지 기후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박제표본, 그래픽, 영상 등을 설치해 놓았다.

펭귄마을에서는 '남극의 신사'로 불리는 젠투펭귄과 턱끈펭귄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세종기지에서 남동쪽으로 2㎞ 떨어진 작은 해안언덕에 위치한 펭귄마을 나레브스키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최초의 남극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은 해마다 봄이 되면 먼 길을 여행 온 수많은 젠투펭귄과 턱끈펭귄의 집단 산란처가 된다.

에코리움의 한편에는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의 책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중에서 발췌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

"왜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나요?"

"생명은 모두 이어져 있고, 손잡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

INFORMATION

1983년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인 에코투어리즘(Eco-tourism)은 유엔이 2002년을 '국제생태관광의 해'로 지정하면서 새로운 관광 형태로 자리잡게 됐다. '생태여행' 또는 '자연 친화형 여행'을 뜻하는 에코투어리즘은 즐겁고 신나는 여행이면서 동시에 환경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 · 학습하는 여행 방식이나 여행 문화를 뜻한다.

둘러볼 곳

우포늪 생태관

창녕군 유어면 세진마을에 위치한 우포늪 생태관을 돌아본 뒤 늪을 둘러봐야 우포늪의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걷기로만 따지면 밋밋하기 그지없는 탐방로다. 습지에서 살아가는 생태환경을 이해하는 자연학습의 현장인 우포늪 생태관은 우포를 꿈꾸며, 우포의 초대, 우포의 사계, 우포늪의 가족들, 자연과 사람의 공존, 생태환경의 이해 등의 전시실로 구성돼 있다. 가상체험실에서는 3D영상을 통해 습지에 사는 다양한 동식물을 알아보고 계절에 따른 우포늪 생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해설사가 우포늪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

관람 요금 어른 2천원, 청소년 · 군인 1천500원, 어린이 1천원.
휴관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인 경우는 그 다음날, 1월 1일 · 설날 · 추석 무료 개방)
문의 055-530-1551 / www.upo.or.kr

신두리 사구센터

신두리 해안사구가 시작되는 지점에 자리한 신두리 사구센터는 해안사구에 대한 정보를 입체와 영상으로 재현한 체험공간이다. 4E(흥미, 체험, 교육, 효율)가 접목된 전시실에 들어서면 프롤로그부터 시작해 바람언덕(신두사구, 시간의 흔적), 모래언덕(생태서식지 신두사구, 신두사구 친구들, 두웅습지 친구들), 신두언덕(사구가 아파요, 신두사구 지킴이, 신두아카이브, 샌드아트), 에필로그(또 만나, 신두사구)로 이어지는 전시물로 이뤄져 있다. 모래를 직접 만지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샌드아트도 체험할 수 있다. **관람료** 무료

국립생태원 방문자센터

매표소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방문자센터는 생태원을 찾은 방문객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으로 홍보관, 영상관, 전망대, 식당, 카페, 특산품 전시관 등을 갖춘 다목적 공간이다. 홍보관에서는 생태원의 시설과 구조를 살펴볼 수 있고, 영상관에서는 생태원이 건립되기까지의 과정이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으로 번갈아 가면서 상영된다. 2층 전망대에 오르면 생태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관람료 어른 5천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3천원.
휴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첫 평일), 설날 · 추석 전일과 당일
문의 041-950-5300 / www.nie.re.kr